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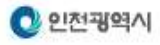


| | | | | |
|---|-------|--|--|-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|
| | | 배포일자 | 2021년 2월 17일(수) 총 2매 | |
| 담당부서 | 생활환경과 | 담당자 | • 생태지질팀장 손여순 ☎440-3431 • 담당자 최종근 ☎440-3433 | |
|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0e0; padding: 5px;">사 진</div>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0e0; padding: 5px;">참고자료</div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
|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0e0; padding: 5px;">보 도 시 점</div>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인천시, 최초 깃대종(식물, 조류, 양서류, 포유류, 무척추동물) 설문조사 실시

- 인천지역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을 상징하는
특정 생물종의 보전과 생태환경가치 자원 발굴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은 인천지역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 생물종의 보전과 생태환경가치 자원 발굴에 기여하고자 2월 17일부터 인천을 대표하는 ‘깃대종’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의 소통참여(설문조사)와 공원,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 공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.
- 깃대종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(UNEP)이 발표한 ‘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’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‘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·지리적·사회적·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’을 말한다.

- 인천을 대표할 만한 깃대종 후보군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‘인천시 깃대종 선정자문위원회(1차)’에서 식물(대청부채, 매화마름, 칠면초), 조류(저어새, 검은머리갈매기, 노랑부리백로), 양서류(금개구리, 맹꽂이, 도롱뇽), 포유류(점박이물범), 무척추동물(흰발농게) 등 11종을 선정했다.
- 인천시는 깃대종 선정 후보군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선정(안)을 마련한 후 ‘인천시 깃대종 선정자문위원회(2차)’와 ‘인천시 환경정책위원회’를 거쳐 인천시 생태계 대표 깃대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
- 서용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“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개최 등 모든 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깃대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”라며, “앞으로 인천시 최초 깃대종이 선정되면 깃대종의 상징성을 홍보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인천이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〈관련 사진〉

